

이정협, 1년6개월만에 태극마크 단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27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남아 축구국가대표팀 6월 A매치 친선경기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협(부산)이 1년6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단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7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6월 호주, 이란과의 A매치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25명 명단을 발표했다. 공격수 부문에서 황의조(김해 오카사)와 함께 이름을 올린 이정협이 눈에 띈다. 과거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정협은 2017년 12월 동아시아컵 이후 처음으로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1년6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A매치 19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다. 올 시즌 K리그2(2부리그)에서 9

경기에서 7골을 넣으며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이정협은 벤투 감독 부임 후 첫 합류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 손준호(전북), 김태환(울산)도 이정협과 마찬가지로 벤투 체제 이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다. 둘은 러시아월드컵을 앞둔 지난해 1월 터키 친지훈련 이후 첫 소집이다. 다음달 2일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둔 손흥민(토트넘)도 포함됐다. 소속팀 일정으로 인해 소집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피' 이승우(헬라스 베로나)

6월 호주·이란 A매치 앞두고 25명 확정 손흥민,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뛰고 합류

와 백승호(지로나)를 비롯해 권창훈(디종), 황희찬(잘츠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킬) 등 유럽파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정협(보훈), 지동원(미인츠)은 부상으로 합류가 무산됐고, 이강인(발렌시아), 김정민(리퍼링) 등은 현재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출전으로 인해 제외됐다.

벤투호가 모이는 것은 지난 3월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2연전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볼리비아에 1-0, 콜롬비아에 2-1로 승리했다.

대표팀은 다음달 7일 오후 8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호주,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을 상대한다. 아시아 무대의 라이벌들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선수들은 6월3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6일까지 호흡을 맞춘다. 6일 오후 항공편으로 부산으로 간다.

첫 상대 호주는 FIFA랭킹 41위로 한국(37위)보다 낮지만 만날 때마다 진압승부를 펼쳤다. 상대전적에서는 7승11무9패로 한국이 열세다. 지난

◇축구대표팀 6월 A매치 소집 명단(25명)

- ▲골키퍼 = 김승우(문수도레 샷포르)
- ▲수비수 = 김영권(김해 오카사) 김민재(베이징 궈안) 박지수(광저우 에버그란데) 권경원(덴진 덴하이) 홍철(수원) 김진수(이음(이상 전북) 김문현(부산) 김태환(울산) 주세종(부산)
- ▲미드필더 = 황인범(벤투버) 이진현(포항) 백승호(지로나) 손준호(전북) 이재성(홀슈타인킬) 이승우(헬라스 베로나) 손흥민(토트넘) 권창훈(디종) 황희찬(잘츠부르크) 나상호(FC도쿄)
- ▲공격수 = 이정협(부산) 황의조(김해 오카사)

해 11월 원정 친선경기에서는 1-1로 비겼다.

특히 호주전은 부산에서 벌어지는 15년만의 A매치다. 2004년 12월 독일전이 마지막 경기였다.

이란은 FIFA 랭킹 21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이 9승8무13패로 뒤진다. 2011년 1월 열린 아시안컵 8강 이후로 승리가 없다.

뉴시스



2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KT 위즈의 경기, KIA가 17-5 대승으로 7연승을 거둔 뒤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KIA가 그 KIA 맞아? 중위권 진입에 '청신호'

KIA 타이거즈가 포효하고 있다.

KIA는 지난주(5월 21~26일) 6전 전승 행진을 펼쳤다. 주초 3연전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광주로 불러들여 스윙을 달성했고 상승세인 KT 위즈를 상대로 씩씩이 승리를 가져왔다.

KIA는 26일 KT전을 승리로 장식한 후 홈 팬들에게 기쁨 박수를 받았다. 최하위로 떨어졌을 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시즌 21승 1무 31패를 기록한 KIA는 9위를 탈리고 있지만 공동 6위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23승 20패)와의 승차는 불과 2경기다. 이번주에도 페이스를 유지하면 6위 자리도 노릴 수 있다.

공교롭게 김기태 감독의 자진 사퇴 이후 8승 1패의 놀라운 승률을 보여줬다.

KIA의 지난주 팀타율은 0.361로 10개 구단 중 가장 높다. 홈런도 7개나 곱들였다.

최형우는 3홈런에 5할이 훌쩍 넘는 타율로 연승을 이끌었다. 최형우는 두 차례 결승타도 때려냈다. 안치홍은 지난해 0.429의 고타율을 기록했다. 12타점에 8타점을 쏟아냈다.

투수진에서는 양현종과 제이콥 터너, 조 윌랜드 등 선발진이 제몫을 다했다. 특히, 양현종이 구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불펜진 역시 대체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KIA는 주초 한화와의 대전 원정을 치른 후 안방으로 키움 히어로즈를 불러들인다. KIA 입장에서서는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대여서 해볼 만한 싸움이다. KIA는 올해 한화를 상대로 4승 2패로 강했고, 키움을 상

대로는 2승 3패로 열세를 보였다.

삼성은 지난주 5승 1패로 공동 6위로 올라섰다. 이학주, 김현근, 최영진, 구자욱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지난주 팀타율은 0.332로 높다. 26일 키움전에서 대타로 나선 박한이의 끝내기 적시타도 인상적이었다.

삼성은 지난주 세 차례의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삼성이 5위로 가기 위해서는 LG 트윈스(28승 24패)를 넘어야 하는데, LG의 전력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은 이번주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는 두산 베어스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와 상대한다. 원정 6연전이다.

SK 와이번스(34승 1무 18패)는 지난주 4승 2패의 성적을 올렸다. SK는 두산(35승 19패)에게 잡지

내 준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그러나 두산과의 승차는 없다. 이번주에도 치열한 1위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와 한화는 지난해 1승 5패로 부진했다.

특히 롯데의 부진은 끝이 없다.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의 참담한 성적을 남겼다. 브룩스 레일리, 제이크 톰슨, 김원중 등 선발진이 간신히 버티고 있고 이틀이 무너지면 대안이 없다. 지난주 팀평균 자책점이 6점대였고 시즌 팀평균 자책점 역시 10개 구단 중 홀로 6점대를 기록하고 있다.

타선에서도 이대호와 전준우만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 부진이 심각하다. 아직 시즌 초반인데도 3할 타자는 이대호가 유일하다.

한화는 5강에서 더욱 멀어졌다. 투타 모두 난조를 보이며 레위권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벤투 감독, 손흥민 소집 "최고 선수 선발 욕심은 당연"

"손흥민은 소집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뜻은 확고하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좀 더 보고 싶어 한다.

벤투 감독은 27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6월 호주, 이란과의 A매치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25명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름을 올렸지만 합류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대표팀 선수들은 다음달 3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6일까지 호흡을 맞춘다.

하지만 손흥민은 6월 2일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다. 이번이 없는 이상 출전이 유력하므로 대표팀 합류 지연은 필연적이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과는 진작에

연락을 취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출장은 인생에서 뜻 깊은 순간일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저기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즐기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전했다. "대표팀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손흥민을 이번 A매치에서 제외, 휴식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 평가전 시기가 유럽 리그 종료와 겹치고 상대의 무게감이 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손흥민은 올 여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벤투 감독은 손흥민을 택했다. "지금 시기에서는 손흥민을 불러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대표팀 감독으로서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고자 하는 욕심은 당연한 것이다. 기본적인 생각은 소집 외 기건 소속팀이 정한 부분과 일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A매치 기간

에는 선수들이 대표팀 일정을 따르는 것이 운영 방침이다. 늘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 그 순간에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이나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과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도 소집 이유다.

실제로 벤투 감독 부임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손흥민을 합류시키지 못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 허락과 관련한 대한축구협회(KFA)와 토트넘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올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당시에도 박항진 감독이 소집을 소화하고 3차전인 중국전부터 출전했다.

벤투 감독은 "지난해 11월에도 그렇고, 아시안컵 1, 2차전에 손흥민이 없었다"면서 "대표팀 특성상



손발을 맞출 기간이 짧다. 그렇기에 이번에 불러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최우선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다. "일단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잘 집중하고 그 후에 대표팀에서도 실력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대표팀은 6일 오후 항공편으로 부산으로 가 다음달 7일 오후 8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호주와 경기를 치른다. 이후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을 상대한다. 휴식 대신 소집 명령이 떨어졌던 손흥민의 발골로 기대가 풀린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